

“다가올 두 경기 뒷문 단속에 치우치겠다”

A대표팀 사령탑 신태용 감독 데뷔전, 다음달 31일 이란과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9차전

A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의 선택은 '모험'보다는 '안정'이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본인이 선호하는 공격 축구로 회귀할 여지는 있지만, 다가올 최소 두 경기에서는 뒷문 단속에 치우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 감독의 A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은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9차전이다.

9월 5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 최종예선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그의 몫이다.

한국은 최종예선 두 경기만을 남겨둔 가운데 승점 13(4승1무3패)으로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4승1패)에 1점 앞선 2위를 유지 중이다.

다가올 두 경기 성취에 따라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직행과 플레이오프 진출 본선 진출 실패가 결정된다.

신 감독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있다.

만일 이란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본선행에 성공한다면 구세주 등극과 함께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지만 미끄러지면 계약은 곧바로 해지된다.

신 감독은 U-20 축구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사령탑을 거쳐면서 공격 축구는 자신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각인했다.

지난 5월 포르투갈과의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다.

기대를 달리 포르투갈전에서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비난 여론에 직면한 뒤에도 신 감독은 "성적을 내기 위해 수비 축구를 구



신태용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하면 1-0으로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축구가 더 성장하려면 강호와 대등하게 붙는 것이 더욱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A대표팀 사령탑으로 신분이 상황 조정되면서 상황 또한 바뀌었다.

신 감독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림픽과 U-20 월드컵을 거쳐면서 나름대로의 신

념을 갖고 있지만 남은 두 경기는 조심스럽고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으로 이기더라도, 두 경기는 무조건 실점 없이 한 골이라도 넣어야 한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경기를 이기면 한국은 자력으로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이란, 우즈베키스탄전이 본인의 지도자

인생은 물론 한국 축구를 위한 간곡한 부탁의 승부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신 감독의 생각이다.

원하는 선수를 맘껏 뽑을 수 있다는 달린 환경은 이같은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자신의 전력만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실점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김민근기자



최지만, 빅리그 복귀전서 139m 대형 투런포 작렬

최지만(26·뉴욕 양키스)이 1년 만에 다시 밟은 빅리그 무대에서 대형 홈런포를 쏘아 올려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다.

최지만은 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경기에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투런 홈런 포함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양키스와 스플릿 계약을 맺은 최지만은 트리플에서 기회를 엿보다 지난 5일 홈런왕 출신 크리스 카터가 지명 양도되면서 빅리그로 돌아왔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최지만은 양키스 데뷔전부터 홈런포를 때려내며 홈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타이 2-5로 추격에 나선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초구 볼을 걸러낸 최지만은 2구째 90.9마일(시속 146km)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겼다. 방망이 중심에 맞은 타구는 외야로 총알처럼 뻗어나가며 우측 외야 관중석에 꽂혔다.

MLB.com의 스탯캐스트에 따르면 이날 최지만의 홈런은 비거리 457피트(약 139m)를 기록했다.

지난해 LA 에인절스 유니폼을 입고 8월15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홈런포를 기록한 뒤 무려 325일 만에 통산 6호 홈런을 때려냈다.

최지만은 1루수 자리가 구멍난 팀 사정상 당분간 빅리그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키스는 통산 월드컵에서 27차례 우승을 차지한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이다. 최지만은 한국인 선수로는 2010년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로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다.

/김민근기자

텍사스 추신수, 2루타·시즌 7호 도루 '맹활약'

'추추 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맹활약을 펼쳐 팀 승리에 큰 힘을 보탰다.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록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4에서 0.255(275타수 70안타)로 올라갔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추신수는 상대 선발 덕 피스터의 초구 투심 패스트볼을 몸에 맞아 걸어내었다.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익수 뜬공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텍사스가 4-0으로 앞선 4회 1사 만루에서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때려내 타점을 수확했다. 시즌 42번째 타점.

추신수는 선두타자로 나선 6회 상대 구원 페르난도 아베르도의 5구째 시속 92마일(약 148km)짜리 직구를 노려쳐 올 시즌 8번째 2루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마자라 타석 때 3루를 홈쳤다. 올 시즌 7호 도루다. 그러나 마자라와 에드리아 벨트레가 모두 범타로 물러나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추신수는 8회 2루수 앞 땅볼을 치는데 그쳤다.

텍사스는 보스턴을 8-2로 물리쳤다. 3연패에서 탈출한 텍사스는 41승(44패)를 수확했다.

/김민근기자

공개된 신태용 감독의 선발 기준, “소속팀 출전 없어도 OK”

“클 수 있는 선수들 활용할 것”

A대표팀 사령탑 부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신태용 감독은 향후 선수 선발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신 감독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국가대표팀 운영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에는 감독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선발을 돕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이다. 최종 결정은 감독의 몫이다.

신 감독이 밝힌 첫 번째 원칙은 해외파 선수들을 무분별하게 차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임 울리 슈틸리케 감독과 홍명보 감독은 해외파, 특히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A대표팀 감독이 정작 자국리그 선수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불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신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K리그의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 정안 된다면 (엔트리) 모두 K리그 선수들로 갈 수도 있다”면서 “K리그, J리그, 중국리그, 중동, 유럽 등 이길 수만 있다면 (어디서 뛰든) 좋은 선수를 뽑아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발 과정에서 내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K리그 소속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소속팀 출전 기회가 적은 선수들의 선발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슈틸리케 감독의 경우 부임 초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은 대표팀에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이 흐려지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를 유지하려 애썼다.

신 감독은 “슈틸리케 감독님은 소속팀에서 출전을 하지 않으면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경기에 못 나가도 나와 맞다면 뽑을 것이다. 감독이 갖고 있는 전술이 있기에 (부합한다면) 경기 나가지 않아도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새 얼굴의 합류는 다음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신 감독은 최근 1년 사이 올림픽대표팀과 U-20 대표팀을 거치면서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유망주들을 성인 대표팀에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감독의 A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은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9차전이다. 9월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